

대한건설협회 도회 오늘 신년인사회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회장:오인철·사진)가 주최하는 '2020년 신년인사회'가 6일 오전 10시30분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다.

이날 지역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종 표창장과 감사패가 수여된다. 특히 양홍기 상리건설(주) 대표와 원홍상 선진종합건설(주) 대표, 이효성 용택건설(주) 대표, 정대환 이레건설(주) 대표, 한상준 (주)우립토건 대표, 안명



선 더파크종합건설(주) 대표가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 이와 함께 도회는 우수인재 발굴·양성을 목표로 회원사 자녀 및 도내 건설 관련 학과 학생들에게 1,95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수상자 명단은 강원일보 홈페이지(www.kwnews.co.kr) 참고.

윤종현기자 jjong@kwnews.co.kr

양흥기 춘천 상리건설 대표 오늘 도지사 표창 수상

건설협회 도회 춘천서 신년인사회

양흥기 상리건설 대표가 2020년 대한 건설협회 강원도회 신년인사회에서도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다. 대한건설협회 도회(회장 오인철)는 6일 춘천 스카이 컨벤션웨딩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도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한다.

양흥기 춘천 상리건설 대표, 원홍상 영월 선진종합건설 대표, 이효성 동해 용택건설 대표, 정대환 횡성 이레건설

대표, 한상준 강릉 우림토건대표, 안명선 원주 더파크종합건설 대표가 도지사 표창을 받는다. 김래선 춘천 동서대표, 최인식 원주 대금종합건설 대표는 도교육감 표창, 이병걸 양양 두원종합건설 대표, 이인수 원주 진영종합건설 대표, 전명길 인제 동림건설 대표, 전연권 강릉 신도시종합건설 대표는 원주 국토관리청장 표창을 수상한다. 한편 고교생 5명, 대학생 17명 등 회원사 자녀 22명에 대한 장학금 전달식도 함께 진행된다. 권소담 ▶수상자명단 kado.net

알·립·니·다



2020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

강원도민일보는 강원도,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와 함께 강원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찾는 '2020 강원경제인대회 및 신년인사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는 민간부문 청와대 경제자문역을 맡은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초청, '2020년도 경제전망'을 주제로 특강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0년 1월 14일 (화) 오전 10시30분

■장소 : 춘천스카이컨벤션웨딩

- 행사내용
- 2020 강원도 경제시책 설명
 - 특강: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 (민간부문 청와대 경제자문·사진)
 - 축하공연
 - 오찬



■행사안내 및 참석문의 : 강원도민일보사 전략국 (033-260-9371), 편집국 경제부 (033-260-9232)

■참가비: 없음

■주최: 강원도·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강원도민일보

■협찬: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20년 건설인 신년인사회... 정·관계, 업체 대표 등 1000여명 성황

李 총리 “올해 대대적 건설투자, 새 기회와 활력 될 것”

200만 건설인들이 경자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유주현·건단련)는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0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관계 인사와 건설사 대표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 총리는 신년인사를 통해 “올해 해외에서 연간 7% 성장하는 동남아시아와 탈석유 인프라 건설에 나서는 중동이 주목되고, 대내적으로는 생활 SOC 연간 10조 원,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105만 호 건설, 노후 인프라 4년간 32조 원 등의 대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건설 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쿠팡 방문 때 대한민국 건설의 위대한 업적을 몸소 체험했다는 이 총리는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GDP의 15%를 생산했고, 20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



지난 3일 열린 '2020 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며 활짝 웃고 있다.

안윤수 ays77@

고 자랑스러운 성과를 내주신 건설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나타냈다.

유주현 건단련 회장은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언급한 100조원의 건설투자 계획은 그동안 어려웠던 건설업계에 재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해에는 이 같은 정부의 시책을 토대로 우리 건설산업도 경쟁력을 갖춘 첨단산업으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이어 “우리는 ‘건설업자’라는 헌 옷을 벗어 버리고 ‘건설사업자’로 다시 태어났다.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

는 자정과 깨끗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에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 2018년이 건설산업 혁신의 원년이었다면, 2019년은 혁신을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진 해였다. 이제는 혁신을 넘어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시기다.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들이 현장에 안착해 기업, 노동자, 그리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화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건배사로 ‘혁

신으로’를 선창한 뒤, ‘도약하자’를 이끌어냈다.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남은 임기까지 200만 건설인들을 위해 예산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언급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하면 된다. 여러분들의 2020년을 위하여’라는 뜻의 ‘위하여’로 건배를 제의했다.

제28대 대한건설협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은 ‘모두가 잘사는 활기찬 나라로 나가자’라는 뜻으로 ‘나가자’를 외쳤다.

정회훈기자hoony@